

# 황상의 산거 생활과 시적 형상화 연구

김규선(선문대) · 구사회(선문대)

1. 머리말
  2. 황상의 원림 구성과 일속산방
  3. 황상의 산거 일상과 내면 의식
  4. 일속산방의 공간과 산거 미학
  5. 맺음말
- <참고문헌>

## 1. 머리말

치원(卮園) 황상(黃裳, 1788~1870)이 다산 정약용과 사제의 인연을 맺게 된 것은 다산의 강진 유배로부터 시작된다. 다산은 강진에서 18년 동안 유배생활을 하면서 네 번에 걸쳐 거처를 옮기면서 여러 제자를 양성하였다. 오늘날 우리는 그들을 다산학단이라 일컫는다.<sup>1)</sup>

다산은 신유사옥에 연루되어 1801년 2월에 기장으로 유배되었다가 황사영의 백서사건으로 같은 해 11월에 전라도 강진으로 이배된다. 해가 바뀐 다음 해 10월에 다산은 자신이 머물던 동문매반가에서 처음으로 여섯 명의 학동을 받아들인다. 이 때 15세였던 황상은 아우 황경(黃鬚, 1792~1867)과 함께 다산에게 나아가 글을 배운다. 학동들을 가르치기 시작한 지 7일이 지난 10월 17일에 다산은 황상에게 문사를 전공하라고 권유하며 ‘三勤戒’를 내려 주었다. 이후로 황상은 다산의 가르침을 받들어 시 창작에 열중하였고 오늘날 다산의 시학을 계승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sup>2)</sup>

다산은 1805년 10월에 四宜齋를 떠나 강진읍 남성리 寶恩山에 있는 고성암의 寶丁山房으로 거처를 옮겼다. 그는 다음해 6월까지 1년 8개월 동안 그곳에 주석하였다. 그곳에서 이 시기의 다산은 큰 아들인 정학연, 이학래나 황상과 같은 읍중 제자들, 그리고 몇몇 승려에게 『주역』을 강의하였다. 이 때 황상은 주역을 배우면서 그것의 二卦 九二의 爻辭에 나오는 幽人의 삶에 매료되었다. 그러자 다산은 황상을 위해 밤새 『題黃裳幽人帖』을 지어 주었다. 그리고 훗날 황상은 『제황상유인첩』의 지침에 따라 一粟山房을 조성하였다. 그는 일속산방에서 자연과 더불어 살면서 은자로서의 면모를 보이기도 하였고, 한편으로 자신을 찾아온 벗들과 교유하며 시를 읊고 차를 즐기면서 선비로서의 삶을 영위하였다.

- 
- 1) 임형택, 「정약용의 강진유배기의 교육활동과 그 성과」, 『실사구시의 한국학』, 창작과 비평사, 2000, 399~434면.
  - 2) 이철희, 「다산 시학의 계승자 황상에 대한 평가와 그 의미」, 『대동문화연구』 53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6, 229~252면.

그러한 황상의 일속산방에 대해서는 이미 정민교수가 주목한 바 있다.<sup>3)</sup> 정민은 논의를 통해 그것의 조성 시기를 비롯하여 공간 구성과 배치, 그곳의 일상 등을 논의하였다. 근래에는 황상의 말년 생활을 알 수 있는 『치원유고』가 발굴되었고,<sup>4)</sup> 최근에는 정민교수가 다시 다산의 제자였던 연암 황지초의 후손가에서 소장해오던 황상의 『치원진장』을 비롯한 새로운 자료들을 발굴하여 공개하였다.<sup>5)</sup> 이들 자료에는 20편의 산문이 수록된 『치원소고』 1권도 나왔는데, 그것에 황상이 쓴 <일속산방기>도 있다. 이들 자료들을 통해 일속산방을 눈여겨볼 수 있었고, 그것과 관련하여 황상의 산거 생활에 주목할 수 있었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일속산방과 관련하여 황상이 영위하고자 했던 삶의 세계가 무엇이었는지 기록을 통해 조망해 본다. 이어서 황상이 남겼던 산거시를 통해 그의 자연 미감이나 내면 세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 2. 황상의 원림 조성과 일속산방

1818년에 다산이 강진에서 유배 생활을 끝내고 마재로 돌아갔다. 즈음에 31세의 황상도 살림살이를 강진군 대구면 백적동으로 옮겼다. 이후로 황상은 그곳에 원림을 조성하여 산거 생활을 영위하면서 세상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일생을 보낸다. 그러다가 그는 1848년 즈음에 살림집에서 조금 떨어진 뒤편에 작은 초막인 일속산방을 지어 거처를 옮겼고, 1853년에는 주변의 조경까지 마쳐서 마침내 일체의 공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sup>6)</sup> 1849년에 황상 자신이 쓴 <일속산방기>가 있다. 1853년도에 허소치가 종이에 담채로 그린 <일속산방도>에는 집을 둘러싼 산자락에 울타리가 있고, 그 안팎으로 대나무와 버드나무들이 서있다. 안쪽에는 살림집을 비롯한 세 채가 있다. 그리고 왼편 산중턱에 한 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일속산방이다.

황상이 일속산방을 경영하게 된 계기는 1805년에 보은산 고성암에서 정학연과 함께 다산에게 『주역』을 배우면서이다. 그는 『주역』의 ‘履卦’ 九二에 나오는 幽人の 삶에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 때 다산은 황상에게 <題黃裳幽人帖>을 따로 지어주며 은자의 이상적 거처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적시해주었다. 황상은 이 때에 미래에 그것을 조성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마침내 실행으로 옮긴 것이다.<sup>7)</sup> 오늘날 전하는 황상의 시문 대부분은 그곳에서 지어졌고, 노년 이후의 시들은 대부분 일속산방에서 나왔다. 그는 일속산방에서 차와 연초를 즐겼고, 초서(抄書)와 시 창작을 하면서 은자로서의 자족인 삶을 누렸다.

예로부터 선비들은 유교적 이념에 따라 뜻을 얻으면 세상에 나아가 교화에 힘썼고, 반대

3) 정민, 「황상의 일속산방 경영과 산거 생활」, 『다산의 재발견』, Humanist, 2011, 641~681면.

4) 구사회 · 김규선, 「새 자료 치원소고와 황상의 만년 교유」, 『한국어문학연구』 58집,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12년 2월, 311~342면.

5) 정민, 「새 발굴 『치원소고』 및 『치원진장』에 대하여」(발표지), 『문헌과 해석』, 2012.

『치원소고』권 5~6을 발굴했던 필자들로서 정민교수가 이번에 공개한 새로운 자료에 반가움을 감출 수 없다. 이들 자료에는 20편의 산문을 수록하고 있는 『치원소고』1권이 있고, 그것의 첫 면에 ‘치원소고권지일(치원소고권지일)’이라고 적혀 있다. 미루어 보건대, 『치원소고』1권은 필자들이 발굴했던 『치원소고』권5~6권의 1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6) 정민, 앞의 논문, 2011, 656면.

7) 황상의 일속산방 경영과 산거 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앞서 나온 정민교수의 논문과 저작물로 미룬다.

로 뜻을 얻지 못하면 물러나서 자신의 몸을 닦았다. 이때 선비들도 자신이 충분한 역량과 덕망을 갖췄더라도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다면 정치 현실에서 물러나서 세상과 거리를 두고 은일의 삶을 선택하였다. 이 과정에서 선비들은 자연으로 돌아가서 다시 때를 기다리거나 아예 세속과 인연을 끊고 산수에 의지하면서 살았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자신만의 원림을 경영하면서 안빈낙도를 추구하였다. 황상의 일속산방도 그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중인출신이었던 황상은 그들과 달리, 애초에 사회적 진출에 한계가 있었고 지향하는 삶도 달랐다.

역사적으로 園林에 대한 개념은 논자에 따라 다르지만 초기에는 광범위하게 사용되다가 후대에 특정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초기에 산수가 아름다운 장원이나 개인이 건축한택원 등의 의미로 사용되다가 후대에 이르러 제한된 공간 속에 자연계의 전형적인 산수미를 예술적으로 재현한, 심미 대상으로서의 공간이라는 의미를 지니게 되었기 때문이다.<sup>8)</sup> 우리나라에서 원림의 조성과 경영도 신라와 고려조를 거쳐 조선조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15세기 이후에 조선조의 봉당정치가 격화되면서 사람들이 화를 당하자 그들은 낙향하여 자연으로 돌아갔다. 16~17세기에 이르러서는 많은 선비들이 중앙 정계를 벗어나 산림에 은거하고 있다. 이들은 중앙 정계를 떠나 강호에 머물며 심신을 수양하고 학문을 도야하며 자연을 음영하였다. 이 시기에 이르러 영남에서는 陶山書堂이, 호남에서는 瀟灑園과 芙蓉洞이 조성되었다. 안동의 도산서당은 퇴계 이황(1501~1570)이, 담양의 瀟灑園은 梁山甫(1503~1557)가, 보길도의 芙蓉洞은 尹善道(1587~1671)가 조성하였다. 이외에도 호남의 원림으로 吳希道(1583~1623)의 鳴玉軒, 이담로(李聘老·1627~?)가 조성한 백운동원림, 정약용의 다산초당, 초의(1786~1866)의 一枝庵 등이 있었다.

그 중에서 황상이 직접 답사하거나 접촉하였던 곳은 백운동원림, 다산초당, 일지암 등이었다. 백운동원림은 강진군 월출산 옥판봉 남쪽 자락에 자리를 잡고 있는 별서이다. 황상은 그곳 주인이던 이시헌(李時憲:1803~1860)과 교분이 있었다. 다산도 그곳을 1805년과 1812년의 각각 두 차례에 걸쳐서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시헌의 부친 이덕휘가 초청해서였다. 황상과 이시헌은 훗날 백운동원림과 일속산방을 왕래하였다. 그리고 다산초당은 정약용이 윤단(尹搏)의 별서를 빌려서 강학을 하였던 곳이고, 일지암은 초의가 1824년에 조성한 것이었다.

황상의 일속산방은 가까이는 조선후기의 호남 원림과, 멀리는 역대 동양 원림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 황상은 일속산방을 조성하면서 이들 별서를 눈여겨보았겠지만 그 중에서도 규모가 작았던 초의의 일지암을 많이 참조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게다가 황상은 일속산방을 조성 중이던 1849년 4월에 일지암에 주석하고 있던 초의를 방문한 적이 있었다. 그리고 그는 초의와 시문을 주고받으며 일지암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보였다. 황상이 일속산방을 조성하게 된 경위나 과정, 그곳에서의 삶의 내면 등은 이번에 공개된 『치원소고』권1의 <일속산방기>에 잘 나타나 있다.

내가 기유년(1849) 봄에 길을 나서 유산선생이 머무신 곳에 이르러 달포를 머물렀다. 마침 사람들이 떠나고 밤이 조용할 무렵 서로 마음을 활짝 열고 내면을 소통했다. 이 때 내가 일어나 이르기를, “상(裳)이 사십년 동안 산거생활을 하며 너무 심한 해마(害馬:본성을 해치는 것)는 털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에 있어 자질구레한 문제들이 없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8) 이주노, 「중국원림과 중국문화- 원림의 개념과 종류를 중심으로-」, 『중국문학』33집, 17~33면.

부터 몇 궁(弓:1궁은 5척) 떨어진 골짜기로 들어가니 산이 휘돌고 물이 겹쳐있으며 보이는 것이란 오직 구름이 이는 것이었습니다. 그 한 가운데에 초가집을 엮었으니 그저 휴식을 취할 한 칸 정도의 크기였습니다. 누군가 규모가 작다고 해, 제가 ‘큰 마루와 작은 방, 창고와 행랑은 내 한 몸을 수용할 만하고 조각한 난판과 비치색 창문, 드나드는 문과 빙 두른 축대는 사람들의 눈을 놀라게 할 만하였습니다. 주위에는 붉은 대나무와 검은 대나무를 심고, 꽃이며 나무는 심으려 하지 않았으니 그것은 온산에 넘쳤기에 심지 않았습시다. 이 집에서 경전을 베고 누워 시도 짓고 노래도 부르고, 무릎을 거두어 단정히 앉기도 하고 다리를 활짝 펴고 눕기도 하는 등 모든 것은 내 마음대로 한다. 몸과 마음이 산과 함께 고요에 들고 사물과 내가 하나가 되어 생을 마치려 한다’라고 했습니다” 라고 하자, 깜짝 놀란 선생이 절로 탄성을 지르시며 “훌륭하고 통쾌하다. 내가 일생동안 마음에 품었던 것도 이것이었으나 아직까지 그 뜻을 이루지 못했는데 그대가 이렇게 나의 마음을 대변해주니, 어찌 추구하는 뜻이 이토록 간단 말인가. 그렇다면 이 집에 어찌 이름이 없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며 마침내 일속산방이라 명명하고 붓을 들어 써주셨으니 그 내용이 바로 일속산방이었다. 또 몇 구절 주련을 써주셨는데 그것은 선부자(先夫子:다산)께서 일찍 산거 생활하며 읊으신 것으로 하늘의 뜻을 즐기고 천명을 안다는 내용이었다. 집 이름은 선생의 뜻으로 하고 주련은 부자(夫子:다산)의 시로 했으니 부자께서 이 세상에 계신다 해도 반드시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천하지도(天下地圖)」를 주시며 “이것을 가지고 가서 일속산방에 소장하라. 드넓은 아프리카와 기묘한 경관의 동서 흥해와 춘분과 추분의 미세한 내용까지도 마치 좌대 위 거울처럼 훤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사마자장(司馬子長)의 우혈(禹穴)과 동파화중(東坡和仲:蘇軾)의 봉상부(鳳翔府)를 지장도(指掌圖)처럼 훤히 알지는 못한다 해도 어렵듯이나마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치원은 옛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니 옛 사람을 보지 못한다 해도 그 발자취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어찌 진정 대단하지 않겠는가! 뿐만 아니라 위대한 천하를 일속(一粟) 안에 소장해 둔다면 그 또한 생각하기 어려운 것을 능히 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셨다.

선생의 깊은 뜻과 깨인 식견을 가슴 깊이 정성스레 담고 두 손을 맞잡고 무릎을 꿇으며 감히 무어라 말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일속이라는 의의는 대략 알 수 있다.

‘일(一)’의 의미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무릇 사물 가운데 많은 것은 ‘일’을 천하게 여기고 적은 것은 ‘일’을 중하게 여기니 이런 많고 적음의 의미로 말하는 것일까? 아니다. 만 가지는 ‘일’로 말미암아 존재하는데 ‘일’이 없으면 모든 것이 없으니 이런 유무의 의미로 말한 것일까? 아니다. ‘일’은 홀수이며 ‘속’은 사물 가운데 미미한 것이다. 소동파가 이르기를, “사람이 세상에 사는 것은 드넓은 바다에 한 톨 좁쌀과 같다” 라고 했는데, 내 한 몸이 드넓은 세상에 한 칸 집을 짓고 있는 모습이 바로 한 톨 좁쌀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옛 사람이 이르기를, “지극히 작은 것은 큰 것과 같아 경계가 없고 지극히 큰 것은 작은 것과 같아 끝이 보이지 않는다” 라고 했다. 그렇다면 작은 것이 큰 것을 대적하지 못하겠는가. 옛날 한문공(韓文公: 한유韓愈)이 석홍처사(石洪處士)를 전송했는데, 석홍선생은 송공산(嵩邛山)과 전곡하(灑穀河) 사이에 사시며 겨울에는 한 벌 갓옷과 여름에는

한 벌 침옷을 입고 아침저녁으로 밥 한 그릇에 나물 하나만 먹었다 했으니 그 의의와도 통한다 할 것이다.

余於己酉春，參尋而至西山先生，打留月有日矣。適於人散夜靜，關津互開，肝膽相照，余作而起曰：“裳也，山居四十年，害馬祛其太甚。眼色耳聲，不能無兒孫之際，自山居距盡數弓許，更入一洞天，山廻水復，有所有者，惟雲起處。就中央構茅屋，只止一間便休。客有小之者，余曰：‘大堂小室，庫司廊廡，容我一身，彫欄翠檻，應門旋臺，駭人衆目，植以紫萸烏笏，花木不務種植，滿山是，不種花木也。於此屋，橫經以睡，賦詩又歌。於此屋，斂膝端坐，或伸脚大臥，動靜語默，惟意所欲。儀形心腑，與山俱寂，物我冥一，使了年壽。’”

先生驚歎一聲，不覺出口曰：“善哉快哉！我之平生所懷，惟此而已，今姑未就，爾道我心，何其志慕之如此相似也！然則此屋豈可無名乎！”遂命名曰一粟山房，抽毫書之，乃一粟山房也。又書贈柱聯數句，此先夫子曾所山居所詠，而樂天知命之意也。屋名以先生之志，柱聯以夫子之詩，雖夫子在世，必不外此。贈以天下地圖，曰：“將此去，藏之於一粟山房也。利未亞之廣大，東西紅海之奇觀，春秋二分之毫分縷析，如明鏡當臺。司馬子長之禹穴，東坡和仲之鳳翔，雖未能昭如指掌，猶能得於依稀之際矣。扈園好古者也，不見古人，而想其遺跡，豈不誠美哉。且天下之大，藏於一粟之中，亦豈非能見難思耶。”

先生之微意通識，伏膺誠懇，執掌屈膝，莫之敢道如何矣。然一粟之義，槩可知矣。一之義，意分兩路。凡物貴多者，以一爲賤，貴小者，以一爲重，此其多少之義歟？曰非也。萬由一有，一無無一，此其有無之義歟？曰非也。一者，數之單也，粟者，物之微也。東坡之言曰：“人之處於世，渺滄海之一粟。”我一身，屋一間於天地之間，顧非一粟也。然古人云：“極小同大，忘絕境界，極大同小，不見邊表。”然則小不可敵大耶。昔韓文公，送石洪處士，先生居嵩邛瀨穀之間，冬一裘，夏一葛，朝夕飯一盂，蔬一盤，其義亦通歟。<sup>9)</sup>

이는 일속산방에 대한 내력을 적은 황상의 <일속산방기>이다. 황상은 1848년 12월초에 상경하여 두릉을 찾아 정학연 형제 등을 만나 녀달 가까이 머물다가 다음 해 4월에 강진으로 돌아온 적이 있었다.

<일속산방기>는 그가 강진에 돌아와서 지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것에는 황상이 산거생활을 하면서 다시 원림인 일속산방을 조성하게 된 경위를 서술하고 있다. 그는 일속산방 이전에 산거생활을 통해 이미 본성을 해치는 것을 털어버렸지만 자질구레한 현실에서의 얽매임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일속산방은 소치가 그린 일속산방도에도 보이는 바, 본채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 있다. <일속산방기>를 보면 그것의 위치를 명시하고 있다. 일속산방은 본채로부터 10여 미터 떨어진 곳에 골짜기가 들어서 있고 산이 겹치고 물이 흐르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있다. 규모는 몸 하나 굴신할 수 있을 정도의 작은 초가집이었고, 붉은 대나무와 검은 대나무를 심고 따로 꽃을 심지 않았다. 왜냐하면 주위가 온통 꽃으로 장식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황상은 일속산방에서 시를 짓고 노래도 부르며 유유자적한 삶을 누렸다. 그는 일속산방에서 심신이 산과 더불어 고요함에 들었고 사물과는 하나가 되면서 자연

9) 『扈園小藁』권1, <一粟山房記>.

과 동화하였다. 그는 일속산방에서 동정어묵과 물아일여의 정신적 충만함을 만끽하고 있었다. 이것은 하늘의 뜻을 즐기고 천명에 순응하는 것이다.

<일속산방기>를 보면 정학연이 일속산방이란 당호와 함께 다산의 시구를 주련으로 써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유산은 황상에게 세계지도를 선물로 주었는데, 그것은 천하의 광대함을 일속이란 작은 공간에 저장하라는 배려였다. 여기에서 황상은 유산이 내려준 당호의 철학적 의미를 탐색하고 있다. 일속의 일은 많고 적음이나 유무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다. 황상은 소동파의 말을 인용하여 사람이란 드넓은 바다의 한 톨 좁쌀과 같은 존재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지극히 작은 것은 큰 것과 같아서 경계가 없고 큰 것은 작은 것과 같아서 끝이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더 나아가 옛날에 석홍처사가 겨울에는 갓 한 벌로, 여름에는 갈의 한 벌로 생활하면서 조식으로 밥 한 그릇과 나물 하나만 먹고 살았던 것과 의미가 상통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속의 의미가 바로 그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철학이었다.

### 3. 황상의 산거 일상과 내면 의식

황상은 1849년도에 지은 <일속산방기>에서 산거 40년이라는 언급을 하고 있다. 이로 미루어 황상은 부친께서 돌아가시고 1810년을 전후하여 산거 생활을 시작하지 않았을까 짐작해 볼 수도 있다. 그는 18세인 1805년에 결혼을 하였는데 그해 겨울 내내 보은산방에서 다산을 모시고 주역을 공부하였다. 이때 황상은 주역을 배우면서 유인의 삶에 대하여 매료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세인 1807년에는 장남이 출생하였고 이어서 아버지 황인담이 별세하였다. 당시 그는 강진 읍내에 살고 있었다. 1808년에 다산이 주거지를 다산초당으로 옮기자 읍내제자였던 그는 따라가지 않았다. 이후로 30여 년 동안 그의 행적은 주위에서 사라졌다. 그는 돌아가신 아버지를 대신하여 가계를 책임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부친이 돌아가신 몇 년 후에 집을 아우인 황경에게 넘겨주고 분가해 나간 것으로 보인다. 이때 황상은 백적산에 들어가 터를 잡고 산거 생활을 시작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山房晚望>	산방에서 석양녘에
童年受戒鑄心肺	어릴 적 받은 수계를 마음속 깊이 새겨
雖衆楚人渠自譁	수많은 초나라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 떠들 뿐이다.
遮雨多栽防南樹	비를 가리려 남쪽을 막아주는 나무를 많이 심고
經風添補向東笆	바람이 찾아들게 하려 동쪽 향한 대나무를 첨가한다.
邨煙曲折形初散	마을 연기는 구불구불 모양이 막 흩어지고
山路迷藏勢半斜	산길은 그윽해서 형세가 반쯤 기울어 있다.
換髓欲無針線界	골수를 바꿔 침선의 경계를 없애려하나니
非韓是杜訪如家 <sup>10)</sup>	한유도 두보도 비판하며 내 집인 양 찾는다.

(言襲古人之詩欲無移來之痕 고인의 시를 본받되 옮겨왔다는 흔적을 없애고자한다는 말이다.)

10) 『扈園小藁』 권5, <山房晚望>.

황상이 일속산방에서 쓴 것인데, 그의 산거 생활이 잘 드러나 있다. 그는 늙어서도 다산에게 공부하면서 받은 ‘삼근계’를 잊지 않고 있다. 그가 산속에 원림을 조성하고 산거 생활에 들어간 것도 다산의 영향이었다. 황상은 일속산방을 가꾸면서 비를 막기 위해 남쪽에 나무를 심고, 동쪽에는 바람을 막기 위해 대나무를 심고 있다. 원림을 조성하면서 비보까지 고려하고 있다. 산방에서 바라보는 촌가 풍광은 연기가 구불구불 피어올랐다가 흩어지고, 산길은 이어졌다가 끊어지며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는 모습이다. 이것이 일속산방에서 바라보는 바깥 풍광이다.

7~8행에서는 황상 자신이 본받으려했던 이상적인 시인으로 두보를 제시하고 있다. 다산은 일찍이 황상에게 시적 재능이 있다는 것을 꿰뚫어보고 시 짓기를 권려하였다. 그도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 시에 열중하였다. 황상은 그동안 한유와 두보를 본받아 모범적인 학사 대상으로 삼아왔지만 그렇다고 그들을 맹목적으로 따른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황상이 부단한 자기 창조의 길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존재였다. ‘고인의 시를 본받으려 하면서도 옮겨왔다는 흔적을 없애고자 한다는 말’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도 바로 그 말이다. 한 마디로 이 시는 황상이 늙어서도 스승인 다산의 가르침을 충실히 따르고 있었고 시 창작에 열중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황상에게 시 창작은 산거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일상의 하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對山〉	산을 대하여
祖孫同寢席	할아버지와 손자가 함께 잠자리에 들며
團聚未全孤	둥그렇게 모여 전혀 외롭지 않다
鉢袋能傳受	나의 도를 능히 전해줄 만하니
朽衰詎歎吁	늙고 쇠한 것을 어찌 탄식하라
清新秋史語	해맑고 참신한 것은 추사의 말씀이고
古雅杜陵爐	옛스럽고 우아한 것은 다산의 화로이다
松月橫牕半	소나무에 달이 창 사이로 반쯤 걸려있거니
精神冷竹徒 <sup>11)</sup>	정신은 차가운 대나무와 같다

이 시에서도 황상의 산거 생활과 관련하여 그의 일상과 내면을 읽을 수 있다. 적막한 산속이지만 그는 산거 생활이 외롭지 않다고 말한다. 황상은 손자와 함께 생활하면서 가르치고 있다. 여기에서도 그가 시를 본업으로 삼아 살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것을 손자에게 물려주려고 한다. 그는 시어에서 추사의 청신함을, 시풍에서 다산의 고아함을 부단히 계승하면서 노력해 왔다. 한편, 바깥에는 달이 소나무에 걸려있고, 자신이 가꾼 대나무들은 정신을 맑게 하고 있다. 이 시에서는 황상의 산거 일상과 함께 그의 내면을 살필 수 있다.

〈空吟〉	그냥 읊다
漫歌無節奏	가락 없는 노래를
興在菊方開	국화 피는 계절에 흥겹게 부른다.
落葉空愁下	낙엽은 행한 시름 따라 지고
浮雲暮意來	뜬구름은 석양 아래 다가온다.
裁書乞花木	글을 다듬어 꽃과 나무를 부탁하고

11) 『扈園遺稿』 권2, 〈對山〉.

排藁遠塵埃    원고를 배열하며 속세의 때를 멀리한다.  
爲問茶童子    차 끓이는 동자야  
其間煎水哉<sup>12)</sup>    물은 끓여 놓았더냐?

황상의 산거 생활에서 꽃과 나무, 그리고 차를 빼놓을 수 없다. 스승인 다산이 그랬던 것처럼 황상은 일속산방에 많은 꽃과 나무를 심었다. 치원(巨園)으로 자신의 호로 삼은 것처럼 그는 치자꽃을 사랑했고, 그것이 꿈속에 나타나기도 하였다.<sup>13)</sup> 그는 대밭을 가꾸고 국화를 비롯한 여러 종류의 꽃을 심었다. 이 시에서도 국화가 피어나고 어디론가 꽃과 나무를 부탁하는 글을 쓰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세속이 멀어지며 손자로 보이는 동자에게 차를 주문하고 있다. 그의 일상이 잘 드러나고 있다.

<山房吟>    산방에서  
幸無隣里杵    다행히 이웃마을에 절구가 없으니  
百結豈先生    백결선생이 어찌 필요하겠는가.  
虛富濃花色    농염한 꽃처럼 부귀는 공허하고  
添貧落葉聲    잎 지는 소리에 가난이 는다.  
拾薪謀計闊    땀감을 주우며 생계를 도모하고  
養竹著功名    대나무를 길러 공명을 기록한다.  
時有林間叟    때마침 숲속에 노인이 있어  
問兒採藥程<sup>14)</sup>    동자에게 약 캐는 일정을 묻는다.

<산방음>에는 황상의 가난한 산거 생활과 함께 자족적인 삶의 내면이 담겨 있다. 옛날 백결 선생이 가야금으로 방아 소리를 내어 가난한 아내를 위로했던 일화를 통해 자신의 가난함을 비유하고 있다. 진한 꽃 색깔만이 풍요롭고 떨어지는 잎은 가난함을 더해준다. 자신은 가난하여 산에서 땀감을 마련하여 생계를 꾸려가는 처지이지만 불편해하지 않고 대나무를 심어 기르며 그 곧은 정신을 기르고 있다. 이처럼 숲속에 사는 노인은 바로 황상 자신이고, 동자에게 약초를 캐 날짜를 물으며 일정을 점검하고 있다.

황상의 산거 생활과 관련하여 그의 사회시를 주목할 필요도 있다. 다음 <已矣哉>를 비롯하여 <歸寧女>·<朱溪謠>·<漢陽城歌>·<贈人>·<晉州民>·<女織屨>와 같은 시들이 바로 그것이다. 이들 작품을 살펴보면 그가 산거생활을 하면서 세상을 도피했던 것이 아니고 언제나 부조리하고 왜곡된 현실을 직시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예로써 <贈人>에서는 출신에 따라 인재를 등용하는 문제점을 비판하고 있고, <朱溪謠>와 <晉州民>에서는 학정에 견디다 못한 백성들이 들고 일어났던 민란을 정당화하여 형상화하고 있다. <女織屨>에서는 짚신을 삼고 있는 가난한 젊은 여자에 대한 안타까움을 담고 있다.<sup>15)</sup>

12) 『巨園小藁』 권5, <空吟>.

13) 『巨園遺稿』 권2, <夢梔子>.

14) 『巨園小藁』 권5, <山房吟>.

15) 황상의 사회시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 논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진재교, 「다산학의 형성과 치원 황상」, 『대동문화연구』 41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2, 27~60면.  
이철희, 「사회시에서 다산과 치원의 차이」, 『다산학』 12호, 다산학술문화재단, 2008, 119~142면.

<已矣哉>            끝났도다!  
 今年亦垂盡    올 한 해도 다 끝나가는구나,  
 如此七十五    일흔 다섯을 이렇게 보냈지.  
 天地何其窄    천지는 어찌 그리 좁은가,  
 欲向無門戶    나가고 싶어도 문이 없다.  
 但於窮谷中    그저 외진 산골에서  
 醉歌發狂舞    술에 취해 맘껏 노래 부를 뿐이다.  
 人與憂俱生    인생이 근심과 함께 살며  
 非不辛且苦    맵고 쓰지 않은 것이 없지만,  
 何乃此至甚    어찌 이 토록까지 심하여  
 極末今當弩    노쇠 끝자락 극단에 닿는단 말인가.  
 繡衣索錢寶    암행어사는 돈구멍만 찾고  
 牧伯事積聚    목백은 재산 축적만 일삼는다.  
 守宰無顧忌    관리는 주저함이 없으니  
 秦政豈翼虎    진시황(탐관오리를 비유)이 사나운 맹수일 뿐이겠는가!  
 公然奪民財    공연히 백성들의 재산을 빼앗는 일은  
 未聞億千古    억천년 동안 듣지 못했다.  
 政堂焦心慮    조정에선 노심초사하나  
 當局事媚嫵    해당 관청은 아침만 일삼는다.  
 我思公之職    내 생각엔 공인의 직분이란  
 公非母與父    어머니와 아버지가 아니더냐.  
 兒罪當笞撻    아이가 잘못하면 매를 들어야하나  
 兒飢當哺乳    아이가 굶주리면 젖을 주어야한다.  
 國之使之牧    나라가 그들에게 돌보게 하였던만  
 毫髮不其撫    털끝만큼도 어루만지질 않는다.  
 民有百種冤    백성들은 백 가지 원통이 쌓였지만  
 無錢不訴府    돈이 없으면 호소할 수가 없다.  
 爲續貨殖傳    <화식전>을 잇기 위해  
 欲躡馬遷武<sup>16)</sup>    사마천의 뒤를 따르고 싶다.

<已矣哉>는 말년인 1762년에 지어진 것이다. <已矣哉>은 한 해의 마무리와 함께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감을 담고 있다. 작자인 황상으로 보이는 화자는 지식과 포부를 갖고 있고 그것을 실현하려는 욕망을 갖고 있다. 그렇지만 그에게 세상 진출에 대한 문호는 막혀 있다. 그래서 산속에서 술에 취해 노래하고 발광하며 춤출 뿐이다. 한편으로 백성들의 재산을 빼앗는 관리들의 탐학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관리들이 백성들을 아버지나 어머니처럼 보살펴야 하지만 터럭만큼도 위무해 주지 않는다면 백성들의 하소연할 곳이 없다고 그는 한탄하고 있다. 이처럼 황상은 세속과 거리를 두고 산림에 머물면서도 내면은 현실을 직시하고 있었다.

일찍이 그가 세속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산거 생활을 하게 된 것은 스승인 다산의 가르침에 연유하였지만 그것은 무엇보다 자신이 소망하였던 내용이다. 게다가 그는 몰락 이전의

16) 『扈園小藁』 권6, <已矣哉>.

자식으로서 사회 진출에 대한 신분적 한계를 갖고 있었던 것도 작용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그는 질곡에 찬 현실을 벗어나 계급과 빈부의 차이가 없는 자연과 동화하여 일체된 삶을 추구하였는지 모른다.

<p>〈書感〉          卅歲自云佛尙塵          澗松俱老孰前身          羣蜂倦樹應香盡          獨婦耘田認屋貧          周易雖深能守受          魯論長喜莫爲仁          客來誤惜翁衰暮          太晚衡門鶴字臻<sup>17)</sup></p>	<p>감회를 쓰다          부처도 티끌일 뿐이라고 어려서부터 말해왔거니와          골짜기 소나무와 함께 늙는데 누가 전신이란 말인가.          벌떼가 나무를 에워싸 향기가 다 사라졌을 터          홀 아낙네가 밭을 맨 걸 보면 가난한 집이리라.          주역이 심오하나 잘 받아 지켜야 하고          논어의 큰 기쁨은 인의 실천보다 더한 것이 없다.          멋모른 나그네가 찾아와 늙고 노쇠함을 애석해 하며          오막살이집에 조정의 초청서가 너무 늦다고 한다.</p>
---	--

마침내 황상은 오랜 산거 생활을 하면서 스스로 산림과 동화되면서 일체화되었다고 본 모양이다. 그는 산 계곡과 소나무와 오랜 세월 동안 풍상을 함께 하면서 자신이 소나무고 소나무가 곧 그 자신이라는 것을 불가의 논리로 서술하고 있다. 산가의 나무는 벌들이 달라붙어 향기가 다 사라지고, 홀로 된 아낙네가 밭 매는 모습에 그 가난을 실감한다. 화자로 여겨지는 황상은 비록 가난하지만 자연과 더불어 자족적인 삶을 영위하고 있다. 찾아오는 손님은 집주인인 황상의 그러한 세계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는 황상의 늙고 쇠미한 모습을 안타까워하며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푸념을 하고 있다. 그는 이미 스스로 세속과 거리를 두고 자연에 동화되고 있을 뿐인데 말이다.

#### 4. 황상의 일속산방과 산거 미학

황상의 산거 생활은 『치원유고』와 『치원소고』에 형상화되어 있다. 그가 일속산방을 조성하고 경영했던 경위에 대해서는 최근에 공개된 『치원소고』권1의 <일속산방기>를 비롯하여 『울당잡고(聿堂襍稿)』의 <일속산방기>등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sup>18)</sup> 이들 기록에서는 황상이 일속산방을 조성하고 경영했던 1850년 전후의 십여 년간 내용이 들어있다. 그 중에서도 일속산방과 관련된 작품에는 황상의 삶의 가치나 자세, 그의 자연을 대하는 내면적 미감을 확인할 수 있다.

『치원유고』에는 <영일속산방(詠一粟山房)> · <재용일속운(再用一粟韻)> · <일속산방가(一粟山房歌)>를 비롯하여 허소치의 일속산방도를 보고 지은 <제일속산방도(題一粟山房圖)>와 <허소치화일속산방(許小痴畵一粟山房)> 등이 있다. 『치원소고』에는 황상이 신기영의 일속산방가(一粟山房歌)에 수창한 <追酬申汕北一粟山房歌>가 있고 <영사호암(詠四號菴)> 등이 있다. 한편, 일속산방을 시제(詩題)로 내세우고 있지 않지만 <自歎>이나 <菴夜>등에서처럼 그것과 관련된 시작품들이 있다.

17) 『巵園小藁』 권5, <書感>.

18) 申耆永, 『聿堂襍稿』(고3436), 서울대학교 규장각.

<詠一粟山房> 일속산방을 읊다  
 菴於天地小於泡 암자는 세상에서 거품보다 작아  
 結在煙雲與水交 안개 구름이 물과 만난 곳에 자리했다.  
 鑿石架巖營竹畝 돌을 뚫고 바위를 걸쳐 대밭을 경영하고  
 疏泉開徑設山庖 샘물을 트고 길을 열어 산 부엌을 설치하다.  
 起居不習鶯并樹 피꼬리가 함께한 나무에 삶이 익숙하지 않고  
 書卷難容鶴半巢 학의 집 절반 크기에 책조차 넣어두긴 어렵다.  
 臥足屈伸惟所意 발을 뻗고 누워 아무렇게나 뒹구나니  
 未知何世是唐堯<sup>19)</sup> 어느 시대가 요순시대란 말인가.

이 시는 황상이 마재를 네 번째 다녀온 이후에 지은 <詠一粟山房>이다. 이 시에서 작자로 보이는 화자는 일속산방의 공간적 위치와 구성, 그리고 규모를 언급하면서 그것의 내적 세계를 암유하고 있다. 그는 속세와 거리를 두고 있었고, 심지어 살림살이 집에서도 따로 떨어진 작은 암자를 조성하고 있다. 일속산방은 거품보다 작은 암자였는데 안개구름이 물과 만나는 곳에 있다. 암자 주위에는 대밭을 조성하고 샘물을 띄우고 길을 내고 간단한 살림 부엌을 만들고 있다. 그곳은 사람이 거쳐하는 것이 낯설 정도로 피꼬리가 지저대고 있다. 내부는 책을 놓기도 어려울 정도도 좁다. 이 모든 것은 황상 자신의 계획에 따라 의도적으로 설계된 것이다. 그는 부유함이나 영화를 탐내지 않고 그저 누워서 손발을 마음대로 굴신할 공간이면 그만이었다. 한 마디로 일속산방은 평화로운 이상 세계의 공간이었다.

<再用一粟韻> 다시 일속산방의 운을 빌어  
 此菴位置若浮泡 이 암자는 물위의 거품과 같은데  
 老學書中訪石交 늙은이가 책 속에서 金石같은 친구를 찾는다.  
 巒起雲封巖上寺 산등성에서 피어오른 구름은 암자 위 절을 뒤덮고,  
 鳥舍花落雨前庖 새가 물고 온 꽃은 비 내리는 부엌 앞에 떨어진다.  
 溪山人道藏金世 산골 사람들은 황금이 있는 세상을 말하지만  
 歲月何殊構木巢 세월이라는 것이 나무로 집을 엮던 때와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許子所居倘如是 許由가 살던 곳이 이러했을까  
 大端天下讓於堯<sup>20)</sup> 천하를 요임금에게 사양한 것이 대단하다.

황상이 <詠一粟山房>을 짓고서 다시 같은 운자를 사용하여 지은 <再用一粟韻>이다. 전체적인 구도는 <詠一粟山房>과 비슷하다. 암자가 물위의 거품처럼 매우 작고 그곳에 책을 읽으며 친구를 찾는다. 산등성이에 피어오른 구름은 절을 뒤덮고, 산새는 꽃잎을 따다가 산방 부엌에 떨어뜨린다. 그리고 태고적 나무집이나 지금의 일속산방이나 다를 것이 없어서 허유가 살던 시대에 다름 아니다.

1853년에 3월 그믐에 초의가 질정하고 소치 허련이 그린 <일속산방도>가 있다. 초의가 그림을 보내오자 황상이 보고 지은 것이 다음 <題一粟山房圖>이다. 이외에도 황상이 소치의 일속산방도를 보고 지은 시가 <許小痴畫一粟山房> 2수가 있다.

19) 『卮園遺稿』 권4, <詠一粟山房>.

20) 『卮園遺稿』 권4, <再用一粟韻>.

〈題一粟山房圖〉 일속산방도에 제하다

水墨翻成竹繞籬 수묵으로 대나무 두른 울타리를 만들고  
 可人石下枕殘崎 바위 아래 여남은 땀기발을 베고 있을 만하다.  
 壺中猶小三千界 항아리 속은 삼천 세계가 오히려 작고  
 橋裏誰知兩偶碁 굴 속에서 둘이 바둑 두는 줄 누가 알fi.  
 點綴仍連似斷得 점들의 엮임은 끊어진 듯 이어져있고  
 微茫有意無心施 아득함에 담긴 뜻은 무심 속에 드러냈다.  
 牀頭未見巵翁在 평상 위에 치옹이 보이지 않는데  
 問是穿雲去采芝<sup>21)</sup> 구름 뚫고 영지 캐러 갔단 말인가?

그림에는 대나무가 집 울타리를 둘러싸고 있고, 바위 아래에는 땀기발이 있다. 여기에서 한 톨 난알처럼 작은 암자를 뜻하는 일속산방의 이름과 관련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속산방은 한 톨의 좁쌀처럼 작지만 그 속에는 삼천세계의 거대한 우주 공간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리고 굴 속에서 둘이 바둑을 두고 있는 ‘橋中之樂’에서처럼 일속산방의 좁은 곳에서 즐거움을 넘실댄다. 말하자면 일속산방은 매우 작은 암자이지만 그 속에 광대한 우주가 들어있고, 아울러 좁은 곳에서의 즐거움이 있다는 비유적 언술이라 하겠다. 5~6구에서는 점선으로 끊어지듯 이어져 있고, 무심 속에 의미가 담겨있다고 말한다. 마지막 7~8구에서는 자신이 잘 보이지 않아 구름이 가득한 산속으로 영지를 캐러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한다. 이 시의 후반부에서는 수묵화의 형사와 사의, 기법과 의경을 포착하여 절묘하게 시로 형상화하고 있다.

만년에 이른 황상의 일속산방에서의 삶은 최근에 발굴된 『치원소고』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황상의 나이 68세부터 세상을 떠난 83세에 근접하는 만년 15년간에 있었던 일속산방에서의 생활은 『치원소고』에 실려 있기 때문이다.

〈苔茅後詠懷〉

지붕에 띠풀을 엮고 나서

兼年風破重傷霖 여러 해를 바람에 찢기고 장마에도 상처를 입었나니  
 誰道敝帚直千金 누가 망가진 빗자루의 값이 천금이라고 했는가.  
 屋外細雨內大雨 집밖에 가랑비 내리면 집안은 큰 비가 내려  
 翼成雨傘嗟苦心 나래를 펴 우산을 만들며 한숨을 쉬었다.  
 左右迴避如臨濤 깊은 물에 다가서듯 여기저기로 피하고  
 滿壁淋漓成小障 물에 뒤범벅된 벽은 작은 가림막이 되었다.  
 欲走其獸將飛禽 달아나려는 길짐승과 날아가려는 날짐승이  
 可笑山翁太華侈 산옹께서 지나치게 사치스럽다고 비웃는다.  
 龍眠山莊何此臨 용면산장에서 어찌 이런 곳에 오겠는가.  
 朝呼銀鹿飯其腹 아침에 은빛 사슴을 불러 그 배위에서 밥을 먹거늘.  
 誅茅天台雜山菊 들국화 섞인 천태산의 띠풀 베어 오며  
 菌椽縛柱不煩劬 서까래 버섯이나 기둥 엮는 녀쿨도 애써 없애지 않는다.  
 向夕坐計今日功 석양을 향해 앉아 오늘 일을 헤아리며  
 復見林間一粟屋 다시금 숲속의 일속산방을 바라본다.

21) 『扈園遺稿』 권3, 〈題一粟山房圖〉.

峯月只從向南牕 동산에 달은 남쪽 창문을 비추고  
溪風不動松塔燭<sup>22)</sup> 소나무탑 위의 촛불은 시내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의 산거 생활이 낭만적인 것만은 아니었던 모양이다. 산방은 비바람과 장마 피해를 입어서 가랑비만 내려도 집안에는 빗물이 새고 벽면이 비에 젖었다. 그가 비바람을 막으려고 지붕을 이고 가림막을 치려는데 산짐승들은 그것이 사치스럽다며 비웃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일속산방은 일찍이 용면산(龍眠山)에 은거했던 송나라 이공린(李公麟)조차 오지 않을 정도로 초라하다고 말한다. 그는 일속산방의 이영을 잇기 위해 산국이 섞인 띠풀을 천태산에서 베어오고 있다. 그리고 서까래에 난 버섯이나 기둥에 얽혀 있는 넝쿨도 굳이 제거하지 않고 있다. 산주인인 황상은 그와 같은 산속의 일속산방을 편안한 마음으로 조망하고 있으며 자족하고 있을 뿐이다.

산거 생활과 관련하여 마지막 구절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황상이 세속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수십 년을 살았다. 그것은 화려한 생활이 아니라, 가랑비만 내려도 집안에 큰 비로 쏟아지는 영성한 움막인 일속산방이었다. 비록 산거 생활은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초라하였지만 그의 마음만은 풍요롭고 자유로웠다. ‘동산에 달은 남쪽 창문을 비추고 소나무탑 위의 촛불은 시내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峯月只從向南牕, 溪風不動松塔燭)라는 언급처럼 일속산방에서 그가 영위했던 삶은 유유자적하면서 평화로웠고, 어떤 세파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

<四號菴次杜客堂> 사호암에서 두보의 「객당」을 차운하며  
四號菴成後 사호암(四號菴)이 완성 된 뒤에  
樹木富近蜀 수목의 풍성함이 촉나라에 가깝다.  
釋初無少醒 여린 그 상태로 조금도 깨친 것이 없지만  
天機愛林麓 타고난 바탕은 전원을 사랑하는 것이다.  
出如脫籠鳥 새장을 벗어난 새처럼 벗어난다면  
能離諸苦毒 능히 모든 고통의 독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自謂得高勝 스스로 고상하고 빼어난 것을 얻었다고 여겨  
兀兀無不足 부족함 없이 자신만만하다.  
天使誰能逃 하늘이 시킨 것인데 누가 피할 수 있으랴만  
未免髮白促 머리털이 하얗게 변하는 걸 모면하지는 못한다.  
受性嗟未慧 아쉽게도 타고난 재능이 지혜롭지 못해  
四隅缺南北 네 귀 모서리에서 남쪽 북쪽이 결여되었다.  
入雲自薪水 구름 속에 들어가 먹을거리 마련하고  
苦歇隨其力 역량에 맞춰 일상을 영위한다.  
疎懶巾櫛稀 성글고 게을러 몸단장에 관심 없고  
散滅身拘束 모든 구속이 사라져버렸다.  
山貧家隨冷 산이 가난해 집안도 쌀렁하나  
春濃艸自綠 봄이 무르익으면 풀이 절로 푸르다.  
心悅唯鶯早 마음에 뿌듯한 것은 피꼬리가 일찍 찾는 것이고  
秋登但果熟 가을의 풍성이란 과일이 익는 것이다.

22) 『扈園小藁』 권6, <苦茅後詠懷>.

其實非隱遯	사실은 은둔의 삶이 아니고
是權列花木	꽃과 나무를 나열하는 권력을 갖고 있다.
隨方而自在	처한 상황 따라 아무렇게나 지내니
從何免癡極	어떻게 심한 어리석음을 면할 수 있겠는가.
經傳手不釋	경전을 손에서 놓진 않아도
見淺何所得	소견이 미천한데 무엇을 얻겠는가.
本性卽不昧	본성은 어둡지 않지만
支離此一獨	이처럼 지독히도 고독하단 말인가.
橫身於草裏	풀 위에 몸을 가로 두고
相資松與竹	소나무 대나무와 서로 어울린다.
賴有高流書	고상한 내용의 책에 힘입어
時時耀此屋	이따금 이 집을 빛나게 한다.
聖訓或不信	성인의 가르침은 때론 믿을 수 없어
雖學不見祿	학문을 해도 녹을 얻지 못한다.
曠如虛空界	허공의 세계처럼 드넓어
所掌雲霞職	관장하는 일은 구름과 노을이다.
行履但山園	발달는 곳은 산림과 전원뿐인데
烏有枉措直	천거하는 일이 어찌 있으랴.
溪農教兒孫	시냇가 농사일을 자식과 손자들에게 가르치며
古師惟后稷	옛 스승은 오직 后稷이다.
適意夜月來	마침 떠오른 한밤의 달
無得稱形色 <sup>23)</sup>	형태와 빛깔을 형용할 수 없구나.

이 시는 황상이 일속산방에서 두보의 시 작품에 차운한 것이다. 사호암은 황상이 은거하던 일속산방의 다른 이름이다. 사호암은 동서남북 네 면에 각각의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동은 석영옥(石影屋), 서는 노학암(老學菴), 남은 일속산방(一粟山房), 북은 만고송실(萬古松室)이었다.

시에서 작자로 보이는 화자는 타고난 천성이 임록(林麓)을 사랑하고 자유로워서 속세의 고통과 독해(毒害)로부터 벗어났다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부족함이 없고 자족적인 삶을 누리고 있다고 말한다. 이것은 천명이라는 것이다. 그는 자연에 순응하여 생활을 영위하고 분수대로 살아가고 있다. 그러다보니 세속과는 달리, 게으르기 그지없고 스스로를 구속시키지 않고 있다. 자연이 빈궁하니 그 자신도 저절로 빈궁하고 봄이 돌아와서 푸르러지자 그 자신도 따라서 그렇게 된다. 마음의 기쁨은 피꼬리 울음소리이지, 물질적 풍요로움이 아니다. 가을에 산에 과일이 익어 풍성해지자 그 자신도 함께 풍성해진다. 한 마디로 자연의 춘하추동 추이에 따라 그 자신도 추이를 함께 하며 하나가 된다. 이러한 삶은 은둔이 아니고 자연과 함께 동화되어 자유자재의 자족적인 삶이다.

그는 경전을 손에서 놓지 않고 있지만, 그렇다고 대단한 것을 자처하거나 기대하지 않는다. 그는 세상적인 복록을 기대하고 있지 않고, 그저 풀숲에 눕거나 송죽을 친구로 자연과 함께 동화하여 살아가고 있을 뿐이다. 결국 그가 주관하고 관장하는 직책은 세상적인 녹봉이 아니라 꽃과 나무, 구름이나 노을과 같은 산림일 뿐이다. 그는 오늘도 자손들에게 농사

23) 『扈園小藁』 권5, <四號菴次杜客堂>.

짓는 방법을 가르치고 한밤에 달이 떠오르면 형용할 수 없는 마음일 뿐이었다.

## 5. 맺음말

이 논문에서는 황상의 산거 생활과 관련하여 그의 일상과 내면 의식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황상의 일속산방은 가까이는 조선후기의 호남 원림과, 멀리는 역대 동양 원림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일지암을 많이 참조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황상이 산거생활을 하게 된 동기는 1805년에 보은산 고성암에서 다산에게 『주역』을 배우다가 ‘履卦’ 九二에 나오는 幽人의 삶에 매료되면서였다. 이때 다산은 제자인 황상을 위해 『題黃裳幽人帖』을 지어 주었고, 훗날 황상은 그것을 실천으로 옮겨 一粟山房을 조성하였다. 황상은 이미 1810년대에 산거 생활을 하였던 것으로 추측되며 1818년에 강진군 대구면 백적동으로 살림살이를 옮겨살다가 1848년 무렵부터 살림집 뒤편에 다시 일속산방을 짓고 거처하였다.

황상이 일속산방을 조성하고 경영했던 경위에 대해서는 최근에 공개된 『치원소고』권1의 <일속산방기>를 비롯하여 『율당잡고(聿堂稊稿)』의 <일속산방기>등을 통해 규모나 공간 구조를 짐작할 수 있다. 황상이 남긴 <일속산방기>를 보면 당호는 정학연이 지어주었고, 그것은 천하의 광대함을 일속이란 매우 작은 공간에 저장한다는 의미에서였다. 황상에 의하면 사람이란 드넓은 바다의 한 톨 좁쌀과 같은 존재이다. 그렇지만 작은 것은 큰 것과 같아 그 경계가 없고 끝이 없다며 일속산방의 의미를 진지하게 탐색하고 있다.

황상의 산거 생활은 다산의 가르침도 있었고 자연에 대한 동경이 컸기 때문이다. 그는 산거 생활을 하면서 많은 시작품을 남겼는데, 시 창작은 그에게 빼놓을 수 없는 하나의 일상이었다. 가난하였지만 그의 내면은 풍요로웠고 원림에서 연초와 차를 즐기며 손자들과 함께 소소한 일상을 영위하고 있었다.

황상은 다산을 스승으로 모셨던 지식인이자 몰락한 아전의 자식이었다. 그는 표면적으로 드러내고 있지 않았지만 사회 진출에 애초부터 한계가 있었다. 한편으로 그의 신분상에서 오는 갈등도 적잖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황상이 세속과 거리를 두고 산거 생활로 들어간 것도 그것의 영향이 없지 않았다. 하여튼 그는 산거 생활을 하면서 자연에 동화되어갔다. 그렇다고 그의 내면까지 현실을 벗어난 것은 아니었다. 시작품을 살펴보면 황상은 산거 생활을 하면서도 유자(儒者)이자 지식인으로서 부조리한 현실에 대해 언제나 눈을 뜨고 있었다.

황상의 일속산방과 관련한 산거 미학은 다음으로 요약된다. 황상에게 일속산방은 평화로운 이상 세계의 공간이었고, 한 톨의 좁쌀처럼 작았지만 그 속에 삼천세계의 거대한 우주 공간이 자리하고 있었다. 황상의 산거생활은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초라하였지만 정신적으로 풍요롭고 자유로웠다. 황상은 그곳에서 자연에 동화되며 자족적인 삶을 누리고 있었다. 그는 이를 천명(天命)이라 부르고 있다.

<참고문헌>

『扈園小藁』

『扈園遺稿』

『聿堂襍稿』(申耆永), 서울대학교 규장각.

구사희 · 김규선, 「새 자료 치원소고와 황상의 만년 교유」, 『한국어문학연구』 58집,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12년 2월, 311~342면.

이주노, 「중국원림과 중국문화- 원림의 개념과 종류를 중심으로-」, 『중국문학』 33집, 17~33면.

이철희, 「다산 시학의 계승자 황상에 대한 평가와 그 의미」, 『대동문화연구』 53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6, 229~252면.

이철희, 「사회사에서 다산과 치원의 차이」, 『다산학』 12호, 다산학술문화재단, 2008, 119~142면.

임형택, 「정약용의 강지유배기의 교육활동과 그 성과」, 『실사구시의 한국학』, 창작과 비평사, 2000, 399~434면.

정민, 「황상의 일속산방 경영과 산가 생활」, 『다산의 재발견』, Humanist, 2011, 641~681면.

정민, 「새발굴 『치원소고』 및 『치원진장』에 대하여」(발표지), 『문헌과 해석』, 2012.

진재교, 「다산학의 형성과 치원 황상」, 『대동문화연구』 41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2, 27~60면.

<Abstract>

## Whang Sang's forest life and the poetic figuration

Kim, kyusun (sunmoon university)

In this paper, we investigate of Whang Sang's forest life and the inner consciousness. In recently, a composition and management of Whang Sang's Ilsoksanbang is released related materials. Ilsoksanbang was over 10 meters into the valley from the main building in the back seat holding, where the water flows overlap the mountain was where the cloud abode. There was a small thatched house was barely enough space to body.

Ilsoksanbang was named by Jung hakyeon. It is the immensity of the world in the sense that ranged from very small space saving. According to Whang Sang's discussion, the vast ocean of the people is like a grain of millet. However, the big and the small things like the end of the border, saying there is no meaning ilsoksanbang are exploring seriously. He put a certain distance from secular nature were continued to lead with a free daily in Ilsoksanbang.

Looking at the works of his forest life, he was a spiritually rich and materially poor, but free. He put a certain distance from secular nature were continued to lead with a free daily in Ilsoksanbang. Where he writes poetry, enjoying tea and tobacco enjoyed a free life with nature.

Key-words: a garden, forest life, Iljam, Providence, tea and tobacco.